

「아이고 아모디도안이 가지고 오날은게시구려 참잘만났소 차자오면서 도
게신지몰나서 애만쓰이더니.....」
서병삼은 지계문을열고 마로로나오면서

「어서올나오시오 이먼데를오셔서 다리압흐시겟구려 나도학교셔 지금막
와셔안존길인디」

마로삿헤 우산을제우고 마로위로

「아이다리야」

함며 오정당은 올라와셔 서병삼과한가지로 방으로들어가 방석우에안는다

「아 그런데요씨는웬일이오 도모지씀져이업스니 어제도 사름을 두번세번
이나보되도 안이오시는디가 어티잇소 다희당신갓치 인정업는량반은 처
음보앗셔」

「안이요 인정업다고 흘것이아니라 요사이몇철동안은 학교에립시시험이
잇셔서 눈코뜰시험시 시험준비하노라고 나는흔즈더죽을번하엿소 공연히
말흐마티로 위로는하여주지아니하코 당신은나를볼져마다 남을홀싱각만
합디다 아이춤」

「무얼 요지어디또 반한데가잇는게지 시험이다무엇이야 나는속으로 엇더
케애가씨어는지 모르겟습디다」

「니가아모리 반한데가잇셔서 아나가기로 당신이 의쓸것이야무엇잇소」
「엇지니가 이가쓰이지아니홀단말이오 그런디 요전에도하든 의론이어나
와 리경즈는 엇지하라고하는의향이오」
함며 오정당은 고스비를받삭치쳐잡는다
서병삼은 눈을썩쩍흐리며

「정말 귀치안꾸려 요전에의론하드시 그러케하라하니깐 그리시오」

「요전의론이라니 요전의론이 무어시란만이요」
서병삼은 눈을썩쩍하며 손을니저으며

여보 조용々々이 말씀하시오 안방의쥬인드르리다

함며 감안이말흐다 오정당은 조용이다시말흐다

「글세 요전의론티로 하라는거시 무엇시오」

「앗다 그 그저 비속에잇는것 말이이요」

함며 눈짓손짓스르 가르친다

「영! 그거시오 그것은 아조못하겟고! 내가오날오기는 아조일을뜻을디
자고 온길인데 하늘이두쪽에나더티도 당신하코리경즈는 다희분이되여셔
살림서지하시노길을 내가보아야하겟소」

함며 괴석이 룩々치안이하게 덤비는모양이라

무어시오 살림이라니 그거 손할수업소 그건 참할수업셔요
항며 서병삼은 아조잡아썩인다 오정당은 다시말한다

그것은 못항겟다시니 그것은 못항면 엇지항겟다는말씀이오 그럼당신의뜻
썩 드러봅시다

서병삼은 예스로이

이러케 죄인답달항드시 할것업시 우리종용 / 히 리약이합시다 그런데
그썩 그 락티식이자는말을 그등즈다려 말항여보섯소

암 히보고말고요 나는그썩문에 리경즈에게 공연히 원망만드릿소 그랴
반이그리 그말숨을항시드란말이오항며 얼골빛을변히가지고 펄々뛰면서
그런듯되악을 범항라고 사름을가라쳐주느냐고 애썩진나만 중간에서
야단을만났소 리경즈가 그리항는거시 다올은말이지 조곰도그르다는말은
할수업습니다

무어시오 죄악을짓는다고 항

항면서 병삼은 링소한다

데십이회

오정당은 압흐로박작 / 닥아안즈면서

당신은 흥이니 무어시니 코로티답을항는 보오만은 등신으로항여 속을

서병삼은 얼골을피며

티우며 근심으로 세월을보늬는 저녀자의싱각은 조곰도안이항단말이오
저녀자는 당신의죄우간 말할마디에 저의몸을엇더케던지 처치할모양이
나저를엇지항면 좃탄말이오 당기던학교도 밋서되항여바린지가 오날
까지 심여일이되도록 등신은 한번도와셔 보논일이업스니 그속이오죽항
겟소 등신을 원망도안이항지오

「그러면 여보시오 엇지항면 좃켓단말이오」

「또 서삼시러이 엇지면조흔야 항는소리가 무엇이오 입티까지 논익이듯
실이기듯말이 다그말이지 글세아조부々로 한가지살림비쳐를항고살아
야항겟다 항는말이지오」

「그러는 학성으로 계집다리고 살림항는수가 어디잇소 졸업이나항고나면
아모리항더리도 관계치안치만은」

「지금은 성세항여 부々의의를 미질수가업다항니 그러면 당신이졸업후
에는 단정코공변되어 결혼식을 거행항겟다항는 확실한디답을항여주시오
당신의입으로만항는디답은 늬든지 리경즈든지 밋을수가업스닛가 당신랴
친척허락을밧아야 안심항고 기다릴수가있지 그러치못항면 당신말만이야
엇지밋을수잇소 당신부모썩셔 만일규수가 보고십다항시면 늬가리경즈를

선을보이고 올라올터이니 량천씨셔도 리경즈의 인물이라든지 범절을보시 면 허락아니 할실리도 업슬듯호오 업슬것이오 한번보시 면 당신보다 당신량천이 더욱이합의호여 다투치 안이호라고 할실쎄 만일 등신이 말씀하기가 어렵거든 다투기 되실말씀호여 드리오리가 나도저에 량 천씨 다천쫓와지니엿스니가

서병삼은 삼쫓놀나며

「안이 천만에 그런소리는 호도말시오 우리부모가 일언일을아시면 나는 서울셔 학교에도등기 못호고 잡혀나려가셔 불기가터지고 남지아너호라 고 그런소리를호오 우리아바자가 엿던완고서라고 등신은 우리아바지의 성정을모르시오 그런소리는 두번도하지마시오」

「그럼 엿더케호다는말이오 이리도못호고 저리도못호고 밤낮이리호면 평 싱에쫓치날사이 업겟구려 오날은 쫓치아니나면 나는아조여기두러누어셔 가지안이홀터이오」

「자! 그러면엇지호야 좃단말이오 큰일났구면 오날은 남의쥬인집셔저 쫓차와셔 사름을못견디게구는구려」

「당신도 너무그렇게 엉빙쥬작만호지말고 참도가 말호마타라도호여보구 러 남은피가살어셔 말호는디 저고는 흥흥호고 잇단말이오 리경즈는 무

슴죄란말이오 오날은 내가져다려념너마라 다투가 극력쥬선호야쥬마고간 신이위로호야노코왔소 그런디 만일당신이 오날와셔 리경즈를 도라보지 안이호고 버리는디경에일으면 리경즈의결심은 그셔는세상사름이던지 저 괴의부모에게든지 무슴면목으로 살겟느냐 곳죽을터이니! 거짓말이아니 라 감안이 내가 괴식을보니가 그러케되면 죽으려고 독호마음을 먹어습 디다」

서병삼은 눈쌀을썩호리며

「아 정말죽을가」

「그러면 내기남이죽는다호는디 외누리를붓쳐 말호리야잇소」

「글쎄 그러치요만은 정말그리셔야 엿지호나.....」

「리경즈가 죽는날은 당신의손으로 죽인것과 조골도 다를것이업소 당신 이기로 그말드르면 무음이별로 도치는듯호리라 그모양이되면 처쎄는내 가또죽어셔리도 나의잘못호죄를 조복호여야 내량심에 썩썩호듯호오」

고며 오정당의 괴식이심히쥬절호다 서병삼은 한참이나 고기를세우리고 은젓 더니

「그러케 모도죽는다고히셔야 엿지호단말이오 감안이계시오 나도쥬싱각 을쥬호여보겟소」

「밤낮생각이라니 생각이 다 무어시오」

「글세 무슨 일을 생각하시오냐 감은이게시오 그러면 우리
이러케합시다 앓가도물히소만은 우리부모는 식골문견으로 구습만지금도
잔뜩드러오져서 옴나위가업는량반들인디 저의제리 스동흔녀즈를 은히로
마자오게하야 달나흔면 드르실리가 만무하오 만무흔썬안이라 큰일이날
터이니 나고리경즈두스름스히에 계약을하여서 친필로계약서를쓰고 도장
을쳐서가지고 있다가 내가졸업하거든 그셔는계약서되로 성례를하고 살
임을하여도 관계치안소 그간에우리부모씩오서 장가를가고 하시드리도
나는졸업하야 장가를가지 그안에는 안이간다 평게하코 있다가 졸업하
후에는내손으로도부모에게 의뢰안이하코 버러먹어갈터이니 서울셔쥬져
안져 살어쓰면 그계획이 묘하지안소 그러케하기로합시다 는도모음에는
리경즈만흔인물과 범절잇는녀즈는 다시업술줄아니스간 썩마음일죽 그녀
즈로 안희삼을모음이 미상불곧썩속갓소만은 별안간에 엄두가안이니셔
그러하구려」

오정당은 한층잇다가

「그리도 당신의물을 나는밋을슈업습디다」

「그게 무슨말씀이오 남즈일언이 중천금이라니 그런말을조곰이기로 거짓

물로써여니일리야 잇단물이오 만일계약을위반하거든 재판소에정소라도
히도 관계치안소

데십삼회

오정당은 고기를세우려드리고 못밋어하느모양으로

「약조가지고는 밋을슈잇소 니마음도썩밋을슈업는디 더구나리경즈가그말
을밋고 은심홀리가잇단말이오」

서병삼은 리경즈에속을 드러다보는듯이

「앗다 그러케만물히보시구려 리경즈는알아듯소」

하며 오정당을아모리나 잘달니여 도라보니라고 이리저리그럴스하게 말을쌘
여된다 오정당은 조금하야 못견디여

「글세여보 리경즈가 몸이져모양만 안이되얏더리도 당신물되로 졸업흔썬
서지기다리고 은심하코서 잇게지오만은 비는점점불너가고 우리집이라
야 학교학도들은 날마다들나날나하느디 그모양이 학도들눈들 쓰이던지
하면 리경즈는 그게무슴모양이되겟소 그리고소문인들 적게나겟소 초일
피일하다가 아히를나출것갓흐면 엇더케하라고그리오 리경즈도 그리셔더
구나 더흔모양이지오 그러하니가 폐일언하코 요사이남이아는듯 모르는
듯 김숙흔곳에 집을한아엇어셔 리경즈도 그곳에서 안심하코 허산하케히

주교 당신도 그집에서 학교에 다니게 하였으면 좋치 아니겠소」
「아 그러면 두리셔 살림을 하면서 날마다 학교에 다니란 말이오 다투어도
그리하는 것이 좋치만은 시골우리부친이 혹시나를 보러 올나오시던지 히셔
들키면 엇지하라고 큰일나게」

「아 명석이 사나희가 그진일을 방비할씩가 업고 겁을 다투야 엇지하오
당신은 마음을 감음이 다투보닌가 물은이리하여도 속은 말서 짚곳에 잇는
모양이 오구려 그러치만 안이 될쎄」

서병삼은 오정당을 조흔들로 속이여 보니 고쳐 하엿더니 도로혀 지기가 오정당
에게 속게 되엿는지라 다투어 생각호되 이물만가지고는 오정당을 돌녀 보니 지못
할줄 알고 한참 무슴싱각을 하는 체하드니 무름을 탁치며

「을치 조흔일이 잇소 그다지 날들 밋지 못하겟거든 스오알안으로 우리 두사
림이 백년을 밋세하고 결혼식을 거행하엿스면 당신이 나를 다시 졸을 일도
업겟고 리경지도 안심을 활터이지오 폐일언하교 그리 흡사다그려」

오정당은 별안간에 흘레를 일우지하는 말에 도로혀 삼씩 놀나여

「무엇이오」

「일간으로 혼인을 하지는 말이오」

「웨 졸업하기전의는 혼인을 졸업다 하더니.....」

「그런것이 아니오 다투말을도 모지 밋지 아니하닛가 졸업시 일간으로 성례
만이라도 하는 말인디 우리 부모의 허락을 밋타가지고 하자하면 밋을 수가 업
스니 그외에 더 존 성례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지오」

「네 그러면 그 혼인법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투가 단기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행하자는 말이
오」

오정당은 고기를 쓰덕 / 하며

「그럼 예수교회에서.....」

「혼인하는 법식으로 말하면 이보담더 조흔법은 아마 다시 업스리다 피차에
학교단이던 사람이니 이 친구식은 다투바리고 신지식 비혼 사람은 신지식으
로 혼인하는 거시 도치안소 더구나 신성혼 하는 법을 해셔 부부가 됨을 서
로 밋세하는 거시 오구려 그리게서 양셔는 한번 신성하게 밋세한 이상에는 하
느님의 힘이 안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더히 그 두 사람의 사이를 찢이지 못하
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시라 조선처럼 사람이 갖다가 붓쳐 놓는 거는 저의 세리
슈를 니면 허여 지기가 쉬어도 이 교회에서 하는 거는 천만년이라도 괴록에
올녀 두는 것은 다시 변치 아니하니 스간 그 후라도 확실한 큰 증거가 되는 거시
원다 당신 마음에는 엇더하시오 그리하면 도치 아니하겟소」

「글세요」
「오정당은 생각하시는 모양이라」

「그러케 생각할 것도 업소」
「그러케 교회에서 혼례를 지내고 나서는 리경조항고한가지로 살림을 할 실
터이오」

「글세 어렵지는 안이히도 우리부친씨 들닐갑야 무셔위셔 그리하여오 그
러면 나는 싸로잇드리도 살림비치나하여 두고 나는 각금왕리나하였스면
도켓다 나드리년이면 졸업인디 그안만조심하였스면 도치안소 만일학교
에서 그말을 드러보시오 남의속은모르고 주식에 방탕할다고 잘못하면 퇴
교요 잘하면 품행점이 삭가질터이니 그러할것무엇잇소 리경조에게도 그
러케말하면 안드를리가 업소 인제그리고 담판은 우리결말함시다」

오정당은 본리서병삼의말을 신용안이하는터이라 그말이 리치에근사할뿐아니
라 요사이학교출신은 남녀를물론하고 야소교회에서 성례하는것은 목전할일
도만코 드른말도잇는지라 이외에디서 서병삼을조른다하여도 이보다더 나은
결과를 잇기어려울듯함으로 믿음은노이지아나하나 도라가 리경조려다 이말
을전하면 리경조도 도아할뿐아니라 조기가 장담하고은일이 성공을한모양이
라 오정당은 안식이화평하여지녀

「그러면 을에는 그럭저럭 지니다가 리년에졸업후신후에는 양친부모씨도
이런말씀을 엿유어 허락도받고 을에는 살림만비쳐하여노코 당신은남모
로게 각금 왕리만항갓단안말씀이오구려」
서병삼은 쾌연히

「그러치을소 그런말이지오」
「그러면 또는거짓말 업스넨다」
「글세 그러케몇번씩 다질것잇소」
「인제는 내속이시원하오 이쓰던본의도잇고 리경조가 이말을드르면 오죽
이나 도와하며 말씀하겠소 그교당은속히 말씀을하여 두어야지오」
「그것은 녀녀할실것도 업소 그교회목사는 나와절친할터이니 시간 뇌일이
라면 특별히하여주지오」

추호만치도 경건지심이업는 서병삼은 이에외람히 하는님까지 회롱코조함이
아니냐

대십사회

오정당은 본리부터 경박한서병삼의 심씨도 더강은짐작하는바이로되 서병삼
의허락이 이만하니 리경조도 깃거위할것이오 조기의침임도 얼마큼 가빅야와
질지라 오정당의성품은 먼성각은적교 목전만알아 오날은오날이오 뇌일은뇌

일노 지늬여가는성품이라 이날도서병삼의말이 다밋엄죽지아니홍졸로 모름이 아니라티 잠시간고식지계로 리경즈를달늬이려하는마음에 동관즈의의집으로 도라와셔 바로리경즈의 방으로 향하여들이간다

리경즈는 오정당을셔병삼에게 보닐후로 하회가엇지되었는지 궁금훈마음에 혼즈안져 여러가지로 궁리만하고있더니 급히문을열고 드러오는오정당을보고

「그랑반이 계시거나합더닛가」

「응만나보았다 이번에는일이 아조잘되었지 인제걱정말아 아엇더케잘 되었셔요」

호며 리경즈는 반가히 오정당의얼굴을 쳐여다보며

「요스이못은것은 학교에임시시험이 잇셔서 시험치르너라고 못왔다더구나그런티 오날은 이러케아조 결말을지엿지 그말한마티듯노라고 별소리를다하고 참엇더케 이를쓰던지모른다」

「아이 참 불안합니다 처음에는그랑반이 싨타고 그리사든것이지요」 오정당은 손짓을호며

「그런것이아니라 그이도너를싨혀셔 그러는것이아니라 식골부모가 전완고덩어리가되야셔 사름의인정이라던지 일의사정은 조곰도싱각아니호고 법만가지고 말호는랑반이잇간 서울셔져의세리 통간호야 잡되이늘든계집

리경즈는 이말을듯더니 금방으로 얼골에희석이나타나며

「그러면 야소교회에가셔 혼인호겟다고하드란 말씀이지오 그러닛간 회당에가셔 혼인을호면 하느님압헤셔 이두사름이 부다가됩니다고 믿세호는

을 집안에드린다고 호실리업다고 말호는눈치가 그러터라 그말은 올은말

이야 닉고향도 그식골이지만은 명식이형제호다는집 사름일스록 전완고

요 전야만이지 싱원님의 줄거리만남아서 내모음에도 그럴줄은알아 그러

호닛간 지금부모의 허락을밧아가지고 혼인을하자면 안이될터이니 리년

에는 즈기가졸업이된다고 그리졸업이되면 약국을버리고 형술을호면부

모에게 의뢰호지아니호야도 닉손으로니히 벌어서 살만호게될것이니간

그씨는 내가부모가못호다호더티도 닉가말을 듯지아니호면 부모도호슈업

슬터이니 그씨는 췌셔시혼인호여가지고 우리가살아도 관계치안라고그

려호니 리년즈지만 기다리호는말이러구나 그러치만 내가말만드려가

지호야 집으로호슈도업거나와 네게장담호본의가 업겟기에 다시내가셔씨

다려 이러케말호엿지 당싨말습이 당연호말이지만 리경즈는 그리도그말

만가지고는 안심을식일슈가업스니 달니또좀싱각을히보시오 그리호엿더

니 한층싱각호다가 그러면 우리세리야 소교회당에가셔 혼인을호즈호더

구나 그런데야 소교회에서 성례호면 그것은나중에 리혼도못호티」

「그러면 야소교회에가셔 혼인호겟다고하드란 말씀이지오 그러닛간 회당에가셔 혼인을호면 하느님압헤셔 이두사름이 부다가됩니다고 믿세호는

거심니다 그럭 그럭에만히 주면 제 마음이라도 얼마큼 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처녀로 실행할것을 하셔 남은고사하고 제 마음에 붓그러워서
사람을볼수가 없어요 그러케만 되면 저도 남의 안희란 명목이 있스니 간 조곰
도붓그러울것업겟습니다

오정당은 리경조의 한업시조아하는양을보고 마음에 만족하여

「그리기에 나도 얼마큼 마음이든나흔지 모르겟더라 그리고살림자논이
야기논 그이말이 너고한가지로잇셔도 노켓셔도 만일식골셔 아시던지학
교에서 아던지하면 형문이사나오닛간 너만상직군이아흔아 으더서살림
을식이겟다고하더라.....」

리경조는 한참싱각하더니

「정 그러헌걸 엇지흐닛가 그리도한일년더참고 지니보시오」

데심 오회

두사람의 인연을붓치너라고 남북으로 분주히도라단이던 오정당의운동혼힘이
헛되지안이하여 오날々서병삼의 허락도받고 리경조의 마음도 적이위로하게되
얏는지라 오정당은 급히퇴일을하고 서병삼을지축하여 엇던날야 소교회에서 간
략헌례식으로 혼례를일우엇더라

대더 이혼례가정당흔혼례라 일클을논지 또논이혼례를 일우논그속에엇더흔도

덕업논일이 품어잇는지 모로리로다 그러나 다만 이순실흔리경조는 지과가바
룩야소교인은아니로디 지극히존엄하오신하느님제단압해서 부々の계약을밍
제함이 가장신성흔줄을알앗는고로 이에일으러별々안심함을 엇々스며 또흔
음에싱각하되 이혼례가 비록은밀흔중에서 지니였스나 나의잇는 마음과 든든
흔 마음은 이에서더지니지 못하는것갓치 써다랏더라 그러하느 이위로와 안심
이뻗철이나 계속함을엇을논지 극히위리하더라

전일리경조는 서병삼의 견학헌결심만들은후에는 고향부친에게고하야 나의흔
마음먹은티로되리라 싱각하얏더니 과연오날々 혼례를헝흔후에 일으러논 전
일에 근심아니하던 고향부친이 허락아니하실가 녀너노이지아니하나 그부친
리과장은 그설경조를 사랑하논마음이 비흔셔업시 무슴일이던지 경조의소청
이라하면 불청하논일이업더라 그러나 이혼인일절은 필연허락지아니할썻흔싱
각이난다 실상은경조가 어려쓸셔부터 혼스를언약하야 두엇던곳이잇다는말을
경조도어려서부터 드렸든바이나 그러는 일을평싱술길슈도업논지라 어년날
이던지 발각되는날이잇스리니 그날이나 기다릴가하논 마음으로 지니여가며
또이외에도 부친에게이스실을고하기를 주저하논일이잇스니 이는다른것이아
나라 아족도 서병삼의 마음을 급히밋지못하논터이니 교당에서 혼례논일우어
마음은적이위로되느 남조의니심은 지금도저서히 아지못하야 마음을편안히할

슈가업셔 다만일노 또 초심하야 어너셔는 이근심을노을 쉰하며 어린처녀의적은가삼을 홀로리오며 잇더라

「선성님 식골우리아바지셔서 허락하지아나하시면 셔는죽겟다고하면설마못한다고하시겟습닛가 그러치만은 단져저량반의 믿음도모지 알슈업셔셔々 그러습니다그려」

「그러케 나는싱각하기를 이러케잇쓰면조킷더라 하로밧비 식골아바지셔서그별히셔 올노오시면 암만히도 한번이야 야단이나갯지만 네가그러케결심훈바에야 부모는엇지하시니 나중에는 허락하시코마실셀 그러면그셔는 아바님셔셔 셔셔를보시고 부락하실터이지 그러케되면 의리로하기로 셔셔가너를 링티홀리야잇슬리가잇디」

리경주는 한참싱각하더니

「그도그럴뜻습니다만은 만일우리아바지가 올나오셔셔 야단이나면 그량반은올타조라하고허여지코고홀갑아 그리지오그리셔 제 믿음에는 저량반의뜻을 아조자셔이 알아가지고 하느것이 도홀뜻히요」

「글세 그럴뜻도하구나」

리경주는 서병삼의진심을 아지못하야 근심하며 오정당은 비록서병삼의믿음을 류리부치고보는듯시 아는바이나 즈기가 모다사이에서 들어이리홀일인고

로 즈기도또홀 리경주부친에게 그별함을 질겨아니하느바이라 아모도륙 고셔지게로 이날저날 보니라고하느터이라 이에두사람이 의론혼것이저마는 그부친리과장에게는 아주그별안이하기로 결정하얏더라

데십륙회

리경주는 서병삼의말을쫓차 사람의이목도 번다치아니하고 깃고유벽홀곳을가리여 집을구함이 자연스적골막바지 골목길속히드러가셔 초가팔구간되는집을구하야 살님을비쳐하고 그곳으로올랐는데 밧갓일은오정당이 모다하야주교로파도홀아엇어 상진군검 더부사리로두엇스니 리경주는 이날부터 신々치못홀살님을 시작함에 일으렷더라

가련홀리경주는 지금도 오히려 믿음으로는 서병삼을싱각하나 서병삼을밋는마음은 전일리경주가아니라

이제는 무슴일이던지 그날즈고실상뜻이 적음을의심하며 안히에게티하야 존중이여기느믿음이 적은것을의심하며 또는 그마음이 변하기잘함을 의심하며 정의를눈물이 적음을 또홀의심한다 즈기는본터 진심으로서병삼의 위인을홀

모양야 저와 갓흔저혜잇고 저조잇는남즈와 한번가정을조직하는날은 그쾌락
 절거음이 무한출줄알앗더니 실상으로지녀보니 바라던바와는 달은지라 그
 러나 심중에 미혹출몸은 여러가지로 다시돌녀싱각하여 그로록서병살이 경박
 무정출사름으로는 셋을지야니고 오히려그남즈에게 칠팔분이나 바라나마음
 을가지고 오날々이세상의 이피로움을 후일에일으려 넋이야기갓쳐고 우술
 날이잇스리라고 밋엇던터이라 남녀간의사랑이라하는것은실로사름의이목을어
 둠게하는것이라 거년여름에 기성대흥산에서 저의가슴속에 식여잇던말근절
 핑을 더럽힌후로브러 처음동안은 그남즈를원망도하였스나 한번흰실에거문늘
 이떠러지면 아모리씻더리도 전과갓치 흰빛은느타는지못하는줄은 아지못하고
 다만싱각하기를 비록이몸을더럽혀쓰는 그더럽힌흔적을씻고 다시내의리상(理
 想)을 실행할날은 그남즈와셔로 한집안을 조직후에잇스리라하여 사랑에미
 혹출몸이라 밋업지못한일을 저기가스스로밋으며 든々이여기고 또호스스로
 의미음을 위로하여지니왔더라

이와갓치 전일에는 서병삼을망녕되어 밋어왔더니 이제일으려서는 일마다셔
 병삼을 의심하여 밋는미음보다 오히려 밋지못하는미음이 날로더하여간다 그
 러는 리경즈는 미음으로축원하기를 아모조록 그남즈로하여곰 경박무정출사
 름이되어 남의몸으로하여곰 망하여주는인물이 되지안키를원하며 또는스스로

힘써밋으려함이러라

리경즈는 교당에서 결혼식을거행하였음을 극히정당하다하여 마음에위로할길
 은어뎛스나 이 혼례가 공변된결혼은 되지못함으로인하며 민적을볼진디 서병
 삼과 리경즈는 전혀조곰도관계가업는사름이라 일거를지니 그러면 만일 남편
 에게바림을입는날이잇슬지라도 저의는 안히된권리를 닷출힘도업슬줄노싱각
 이난다 그러는 서병삼의미음이 아모리썩었다하기로 몸이교인되야 하는님의
 제단압해서 부부가됨을 서로밍세하고 설마오날날일으려 나의안히아니라일권
 르지못출줄로잇스나 자연히 스스로고적한마음이 념두에나타나며 간혹보는셔
 병삼의행동을 의아이녀일씩마다 한집을맛고 살님을시작후로브러는 더욱이
 심는고교 고적출심회날로더하며 호부를물론하고 그중에도 서로심정을통하
 며의론하는사름은 비록멀니떠러져셔잇스나 오정당출사름뿐이러라

오정당도처음에는 저물이눈을가리워 리경즈를유인하였스나 지금은 의리와
 인정에설니여 모르는체출슈도업고 이곳에로살님을난후에도종종와셔 제반스
 를모도보살피주는터이라 오날은 마츨일요일이고로 아츨부터 사저스콜리경즈
 의집에일으렸는디 지금리경즈를더하여 권연을펴스피우면서

「이이 경즈야 그러닛간 그랑반은 너 이리로이사오던날 단어가셔는 이제
 서저 한번도오지아니하였단말이나」

「네 아마요스 이 하괴 시험이 쉬된다니 시간 그리셔 못오시는게지요」
오정당은 머리를 두스글그면서

「글세 밧부기에 오지못하는것이겠지만은 네가져러케 믿음먹고잇스니
엇지흔담말이나 오날웃흔날은 공일인데도 도모지오지아니하니 그런인정
머리가어더잇겠지」

「그렇치만 잇다가라도 오실지알슈잇슴닛가」

「너도씩할지 각금박아지를글그려무나 너는사람이 너무조기만히셔 이리
면 이리고 저리라면 저리니 시간 스나 회가 넘보는것이 지 그러지말고 각
금야단을 좀쳐라 비뉘기도하고 뒤밧기도히야지 지슈곳하고 날잡아잡슈
시오호고잇스면 도로혀그사람의 맘에는 맛지안는법이여요」

리경조는 얼골이 불거지며

「저는천성이 이모양이되야셔 남의비위맛츄어가면서 그리홀줄을몰나요
그리고 그러케하고도십지안코요」

「그리기 못쓴담말이지 그셔씨는 본리난잡하게놀기를 조아하는성품이니
스간 네가야모조록 그비위를맛츄어가면서 다른계집에게는 눈을뜨지아니
하도록하고 내게만혹하게만드러 늦치아니하면 나중에 후회홀씩잇다정
신차려라 셔씨는 성품이그러헌데 너는밤낮점자는부인의티도만 가지고잇

쌍 가안이어날 이와웃흔 추흔권고를드를경우에 일음을닉심으로 심히분하고원통
할여한다

데십철회

옥 지금 남티문덩거장에 경의선렬츠가도착할엇는디 히는임의셔양에 일으러스며
역부는

「난다이몬난다이몬」

누 할며 역명의오는소리와 승익들은물미듯이 차안으로 느려와 덩거장밧그로향
할여 나오신발소리에 지금서지 조용하던덩거장이 불시에분요흔 장터웃치
되얏더라 이어러승익중에 오류십이나 되여보이는 시골부인사람이 머리에
는슈건을쓰고 손에는썩불 / 호철죽는무집히이를집혔스며 셔양목치마저고리
에풀은제게며여 거름거를제마다 와삭 / 소리가 리웃이요란하다 그흔은부인
압헤는 치마를쓰고 모로비속 / 하며 한남츠에게 붓잡혀셔 신을녀가는절은

부인한사람이잇스니 명거장박게는와셔 그젊은부인은 미리기다리고잇던 교군을타고 늑은부인과 그남자는 인력거를불너타고 뒤를쫓차가더니 남뒤문드러셔서 구리키벽문으로드러셔서 뒤전골네거리내여 한골목을드러가더니 김소사라하는문피보흔집으로 일행제사람이 한가지로드러가나 뒤에싸라온놈들은 죽셔병슴이러라

그유인김소사는 일행을영접할야 안방에좌정케하고 한편으로는 더부사리계집을불너 장국을쓰려라 국슈를사오너라 분별할며

「참 오날 을나오신다는말씀은 스희량반제드러습니다만은 차에서로인이 었지나뻘쳐오셨습닛가 언제떠는섯는지 시장도할실것이오 이야기씨가 싸님이오닛가 어여부기도할는지」

할며 늑은부인엮헤 붓그러히안져잇는 절은부인은 정신업시 치어다분다 늑은부인은 그들을향할야

「그것소집어 닐여라」

할며 다시김소스를향할야

「우리사위가 여러히틀두고 퇴에서신세를 지고잇셔스 감수하기가 일을것업소」

「안이 천만에말씀을 다할심니다 셔셔방은 우연이 연전부터 우리게와셔

잇섯지오만은 조석흔찌 자실만할게할지못하고 이런말씀을드르닌가 도로 허붓그럽습니다 그량반이 원악얏전할시닛가 퇴에서다른학도들 모양으로 유인을이리움기고 저리움기고할는지 안이하고 한곳에서만 계시는성품이여요 그리셔 우리집에오신후 즈연여러히가되닛간 인제는속천이되여셔 한집안사람갓치 송허물이업시 지니지오 었더런지 스희량반은 잘어드섯쓰니다 저아기씨도 남편량반은잘만나셔셔 이후에팔지도조호시오리다」

늑은부인은 그들이 북짐에서 조고마흔처용을 쓰집어닐여 그모친엮헤뵈는것을다시그늑은부인은 김소스의압흐로 미러노흐며

「시골셔 가지고온것은업고 었슬조곰 고아가지고와소 으히들이나두고유시오」

「안이 그천만에이것을 외다갓다유심닛가 불안흔니다고려」

이씨 셔병삼은 교군사와 인력거사를모다치러주고 다시안방으로드러와셔 펄셔유져안즈면셔

「장모씨셔는 미리그별도업스시더니 었지이러케 별안간에올나오셨습닛가 차속에서 모녀분이만 었더케오섯셔요 무섭지안으시오 인제는장모씨셔도 키화를단단히할섯습니다고려 저런절문제니자갓흔사람은 불가불키화를좀 식여야갓습니다」

하면서 서병삼은 견준질을 하며 흘근 바라보니 그 절문부인은 또 한 서병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이셔로 마조치미 다만 얼굴을 붉히고 고기를 속으린다 늙은부인은 서병삼을 치여다보며

「나도 이애를 더 좀 다리고 잇섯스면 도캐지만은 천정에 온지도 밧서 일년이 넘어스닛간 출가한 사람이 그러케 오리잇기도 의외의 일이지 그런데 요스로 퇴에서 편지가 수초와서 이번에 즈네가 여름에 방학이 되면 나려올터이니 그 편에 머느리도 보니까 그렇고 그렇기 불이야 < 다리고 올나온 모양일세 그러나 자네는 아주 학교 방학이 안이 된 모양인가」

「네 일간 방학될 모양이올시다 방학만 되면 곳나려 갑지요 그러면 장모씨셔는 엇더케 하라고 하심닛가」

「나도 쓸싸려서 사돈덕구경 좀 할러가겟네 지금은 사돈간에서로 왕리하는 세상이닛간 성인도 종시속이라니 나도시속을 좃겟네 쓸을여기서 지다리고 왔다가 혼자 집으로 느러가기가 정섭섭하이그려」

「그러하시겟시오 제집까지 참되시고 갔스면 모녀분이다 섭섭지안코 죠으시겟습니다 몇칠셔올서 제실동안은 구경이나 단기시시오 제가 학교 시험만 업섯스면 되시고 단기겟습니다만은..... 올치 참조흔이가 있습니다 여귀 주인아쥬머니만 압홀제시면 저보담 낫게시리 구경시켜 드림니다」

김소스 눈엍헤잇다가

「그러케 하시오 어려울것잇소 내되시고 단기리다 로즈만만히 니구려」

서병삼은 절문부인을 한번 또 치여다보며

「여보 주인아 어머니가 제니자도 좀 잘 구경시켜주시오 시골구석에 만잇셔 노아서 귀화를 좀 식여보아야 할터인티 하하」

늙은부인은 허허우스며

「여보게 자네가 장가든지는 오륙년이 되엿셔도 즈네는 노셔올만잇셔셔 니외간에도 아마 잘 모르리만은 귀화란 말을 하니 나내애들이지만 너모시레 도싸루고 귀화를 하려고 하셔 큰 걱정일세」

「아아 어머니는 또 망녕을 피시네」

「아이 어머니는 또 망녕을 피시네」

「그러면 더 죠치요 요세세상은 남녀업시 완고히셔는 못씀니다」

「아아 어머니는 또 망녕을 피시네」

데 섭 팔 회

서병삼은 지금으로 보러 철팔년전 심슴세씨에 임의이녀즈와 혼례를 일우엇스

며 그후로 서병삼은 경성에 올라와서 유학함으로써 뇌외간에 서로 친근히 이야기 하여본일도업스며 서로얼골도의희홀디경이라 그장인되는사람은 권진사라호는디 황해도황주지경에서 농업으로살다가 권진사는 다만무남독녀를 십세씩에 귀히호던질도 돈연히이져바리고 자는듯시 이세상을령결홀의 과거홀모친이 어려운살남에 삼년초도를 간신히지니고 권진사제해앗슬씨에 서병삼의 집과 서로인약호앗든흔스를 급々히일우니 그씨는신부나 신랑이나 다미거홀 아히들이라 그럼으로 식가에서는 천정으로 혼이보니여 홀노잇는모친도 위로 케호며 또아죽어리다호여 제반일을다 더비와가지고 오기를위홀이러라 이녀즈가 점점자라 나히이십에일음이 용모와지질이 또홀남을 부러호지안이홀만 호여 귀에듯고보는디로 남과호치쫓차가고 조곰이라도 양보호지안이호며 또는협호고 암상스러운 성질이잇스나 외양으로 보기는스근<호는 개집다운녀즈이라 그러호나 눈가에는 적지안이홀압독이 은은히보이더라 서병삼은 그녀즈와 서로어려서보앗더니 오날날또호서로 장성호여 만나니 전 일에보든여즈가안이요 그어엽분티도와 아름다운얼골은 진짓사람을놀니일지 라 그외에또성품이 썩썩호여 전일에는 부모슬하에서 서로수문수답도업섯더니 오날날은 그남편되는 서병삼에게 척척분니며 또는그남편의뜻을맛초아가며 친절히구는지라 여려달동안 리경즈의다슈곳호고 속으로문정을두고 것호

로는 범연히호는듯흔 식로신정호부々の정의로 지니는서병삼과호흔 방탕호사람의뜻에는 서로맛지안이홀썩안이라 의외에슈티홀의 그거슬처치호기에 근심호여 즈연이 그사름에게는 이정이점절얼바가던 서병삼은 홀연이이와호흔세 상에서 다시업는듯흔안희를 만남의 기거은모음을 비길티업서 서로주거니밧 거니호며 뇌외간금슬도 별안간에 야단이되앗더라 이리구러 몇칠을자낸의 서병삼은 정신이전혀 권씨의게만싸져 리경즈가 사직골잇는줄도 거의이져바릴디경에 일으릿스며 권씨는 그집주인 김소사와 미일장안유명호고 구경홀만홀곳은 일일히구경호고 도라와서는 그남편되는 서병삼과리약이라

「오날은 또 무슨구경을호였소 시골사람이 서울처음오면 남티문보고 절을히야호는범인디 절이나히소」
권씨는 서병삼의얼골을 치여다보며

「나는 아조천치로아나보구려 아이안이쇼와 누구는서울을얼마나 을애잇섯다고.....」

「내가 틴이잇스면 좀다리고다니면서 구경을식여주련만는 나를싸라다니면 별々조흔것이 다잇지만은」

「아이 고만두시오 나도그만호면 구경다히셔오 리일은 경복궁구경을홀터

이니스간 그것만하면 서울은 다본심이지오
 서병삼은 썰々우스며셔
 「공연히 쏘너무도라단이 지마오 못된스나희들아 뒤쫓치리다ㅎ々々」
 서병삼 권씨가 저그의성미를맛초아 늠잡히슈작도ㅎ며 괴롱도ㅎ여 만슈바저
 를다시업서ㅎ는디 한업서기거워ㅎ더라

데십구회

리경즈가 스적골가셔 살님시작ㅎ지가 발셔슈삼삭이되였는디 빙화는썰러져다
 지나고 록음이성ㅎ야 초하일의가되얏도다 리경즈는 팔구삭이나된 티북이점
 々불너와셔 현연이 사름의눈에 썩이게되얏스니 리경즈는 남보기붓그러워호
 정출입외에는 문밖글나지안이ㅎ고 좁은집안에서만 날을보내더라 서병삼도
 살님을 처음시작ㅎ엿슬디에는 닷시에한번도오고 일헤에한번도오더니 요사이
 로는 심일동안이나 도모지소식이썩이엿더라 전일에는 서병삼의위인이 단
 덩ㅎ고 밋어운일만보아더니 점점날이가고 달이가셔 저내여볼스록 그스름의
 신상에 결점만나라나며 더욱이남편된사름의위염과 밋음이 조곰도업스며 또
 한안히라ㅎ는것이 한집안을 다사러가는데는 크게관게잇고 소중ㅎ줄을 전연
 히모르고 잇는모양을 심히분ㅎ고 절동이역이여 전일에기히싱각지못ㅎ고 내
 몸을경솔이허락ㅎ얏슴을 뉘웃치나 밋지못ㅎ일이라 이제몸이 이디경의이르럿

스니 년리로먹어오든 리상은 발셔바리지도 못ㅎ게되얏거니와 이란이상에는
 다만남편의바림이나 입지아니ㅎ기를 바라는것이 오히려 녀즈의형실일썰ㅎ야
 므음으로 기히결단ㅎ는 그중에는 첫정이가 오히려다업셔지스안이ㅎ을알너라
 녀학교에서 활발ㅎ괴상을기르던 리경즈가 한번남녀간 이정이라ㅎ는물건에
 살오잡힌비되더니 전일에보던 리경즈는 다시구ㅎ슈업스며 난잡히놀기조화ㅎ
 는 서병삼은 일노인연ㅎ여셔 얼마큼사랑을감ㅎ더라 허물며요스이는 더욱이
 천스만녀에 몸이잠기여 마음으로브터 웃고ㅎ이나는날은 적어지니라 변ㅎ
 기쉬운사나희의 마음이 저미업시알기도 쉬운일이러라 그러나 리경즈도 전
 히그러ㅎ을 모로지안이ㅎ는고로 서병삼의 압헤서는 강잉히 쾌락ㅎ괴식을너
 이나 므음을조츠나 오지못ㅎ는고로 도로혀 민망ㅎ썰도잇스니 셔로맛날제마
 다 정이기히가지는못ㅎ고 요사이는 점점사이가멀어가는듯ㅎ게 싱각이된다
 그러나 안히된사름이 그남편에게 향ㅎ므음이나 흥상경々ㅎ는터이라 셔로남
 북에허여져잇슴으로 몇철소식을몰나도 궁금ㅎ싱각에 엿드ㅎ썰는 서병삼의괴
 속ㅎ는쳐소셔징 츠져갓던일도잇셔스나 서병삼은 갈제마다 오는것을불기이아
 는모양이라 그러나 내몸이임의 그사름의안히되얏거늘 남편의안부를 못고자
 하야 차자오는거셔 무슨잘못ㅎ이 잇스리오ㅎ며 스스로밋으며 그리도 리경즈
 는 저그의지위가 날로위티ㅎ야 가는것을아지못ㅎ고 이복중에아히만나오는

날은 서병삼의 모습도 글로인하야 잡을슈가잇스리라하야 또흔 스스로위로하
더라

서병삼이 저귀의괴속하느처소로 리경즈가오느것을 실허역이여 오지아니하도
록말하니 이는학싱잇는집에 절은녀즈가 저조리와하면 밧갓청문이 고이하다
하여하느말이나 리경즈는 부득이혼일이잇고 서병삼을불슈는업고하느는할
일업서 츠즈오느러이라 전일에도 리경즈가 서병삼을 수삼츠쳐왔스나 요형
이 조흔괴식으로만 지니엿더라 그럼으로 오날도 여러날소식도못드러 궁금흔
모음에범하야 불일이또흔잇슴으로 리경즈는 사적골내집대문을나서 서병삼의
잇는 죽동을향하야나섯더라 썩송아리갓치 화락하던얼골이 저이슈척하엿스나
도로혀단아하며 아름다움이더흔듯하야 속발로쭈지엿던머리는 요사이다시너
리여 뒤으로쭈지고 슈복과란노은비녀를썩젓스며 귀이귀와 국화잠한아를썩넛
스니 슈々흔티도는더욱이아름다움을 한층더높히보이더라

데이십회

리경즈는 무거운몸과 썩썩흔비를 남뵈이느것이 붓그러워 인력거를타고자하
나 몸이올니면 북중의희의몸에 험다함으로 부득이하야 치마를내여쓰고서
병삼의 우거하느 죽동김소사집으로 향하야온다 리경즈는 길에오면셔도 싱각
하기를혹시 이냥반이출입이나아니하얏슬는지 또는손이나와서 좌석이분요치

안이흔지 또만삭흔몸으로 멀니걸니왔다고 썩짓지안이홀는지 빅가지로염녀
를하면서 그럭저럭 김소사집에 일으렛는지라 치마를버셔들고 티문에드러서
니 집안이다종용흔티 다형이건넌방에는 다만서병삼이 청상을향하야 홀노안
젓는지라 마당에서 신발자취남을듯고 고기를들으며 리경즈의얼골을보더니
눈썹을잔뜩썩흐리며 혀를살々차더니

「글세 왜이러케 각금은단말이오 그거웨 일은말두 펴 안이듯는구」

하며 말하느눈치가 티단불긴하여하느모양이라 리경즈는 서병삼이괴석이잔뜩
썩푸린것을보미 무슴소리나 질으저안이홀가 염녀하녀 마루로올나와서 조용
이방으로 드러가안즈며

「자쇼 이러케쳐져 오지말나고하신 말씀이잇셔지요만은 요사이십여일동
안은 소식이업스시길네 혹시무슴병환이나 나시지안이홀였는가하고 염녀
되고 궁금흔마음에 썩저를들을줄알면셔도 찬찬히와셔요 그리고다른의론
할일도잇셔서.....」

「요사이 몇철은 학교시험으로히셔 골몰하여노니싸 엇지차자갈름이잇나
그러치만 몇철동안 오지안는다고 썩뵈듯하면투투튀어나오니 남이보면 학
싱에게 젊은녀편늬가 종종츠즈온다는소문이나면 니모양이 창피흔것은
엇지하라고 그리하오 그썩인가 제일니몸을싱각히야지 지금만삭된몸을히

가지고 감안이들어안졌셔도 괴로울터인디 몸을운동을하여 은혜게서지
희롭게하단말이오

「그리도 남들의말은 각금조공서 헝괴하는것이 좃타고하길니.....」

「어 참 답답한사람이로구 헝괴라는것은 집근처에서 잠간식운동하여보는
것이지사직골에서 이 늠촌서지 십리나되는디를 헝괴하단디가 어디잇
단말이오」

「네 이후에는 안이오지요」

호고 리경조는 풀이한아도 업시안져 슬음업시 디 답하는양을 서병삼은 바라
보며

「의론할일이잇다니 무슨일이란말이오 살남스리일갓것갓호면 나는듯지도
안이호겟소 게서마음디로호겟이지 나다려말할것도업소」

리경조는 서병삼을 치어다보며

「집안살님의론이안이라 일전에식골우리아바지의게서 편지를호섯셔요」

서병삼은 놀뉘이는듯이

「아 장인씨셔.....글이무어시라고 호섯드란말이오」

「이번하괴휴가에는 집에느려와 단어가라고호섯셔요 그런데 만일안이는
려오면 당신이 올라오시겟다고호섯는디 하괴방학도 몇칠안이남엇스닛간

간다던지 못간다던지 좌우간 답장을히여주오 이런리약이는 당초에말씀
을호지안이호섯셔 우리아바지는 잇씨셔지도 내가학교에단이느솔만 알고
게신데 이일을엇지호면 죠출가오」

호며 발셔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호여지며 고기를숙우린다 속으린고기 백설갓
흔목뒤에 삼단갓흔머리를 얹전이썩지고 은비녀귀기썩진모양을 서병삼은
한찰동안이나 드러다보다가 다시 음성을유순호야

「내가 우리부모씨 말씀하는것과 맞찬가지니 님들엇지할슈잇소」

「만일 아모소리업시잇스면 우리아바지가 올라오실터이니 엇지히오」

「장인씨셔 올라오시면 그거슨 그씨일이 지 지금부터 걱정을것이업소」

「아니 그게무슴말씀이시오 서방님은 그러케예스로 생각호셔도 님몸이되
야서싱각을 좀히보시오」

「그씨 당호면 나도또무슨도리가잇지」

서병삼은 찰하리 리경조의부친이 올라와셔 리경조와자과의 관계를쓴코 다리
고나려가기를 은근이 축원호는터이라 서병삼은 리경조에게 디호정어 전혀업
서진것은아니로디 그성품이 너모진정호과 또는 의외에 슈리된일로인호여 장
리씨지라도 리경조와 관계를 쓴처못할가호는 여러가지의 념려로호야 오히려
일즉이 그씩을씩거버리고자함이라

리경조는 항상 서병삼의 모습을 의심하던터이니 이제 조과의부친이 올라온
다 할야도 조곰도 겁나는 모양이 보이지 아니함을 보건터 과연 나에게 향훈만큼
이 적은 줄을 알겠는 지라 스스로 생각하되 문일그디가 이와갓치 마음이 달나드
러갓을 진터 나도상당히 쟁취를 할일이 있다하는 듯이

「서방님께서는 무슨의견이 계신지 몰나도 나는 벌써 브터 한 마음 먹은일이
잇소 우리아바지가 올라오셔도 상관업다고 할실것조흐면 나도걱정할것업
소우리아바지가 올라오시면 나를 다려간다고 할실터이니 그씨는 나가죽
기로결단하고 벌써혼인까지 지니엿스닛간 죽어도 다시 다른곳으로 가지
는 못하겟다 할면 우리아바지도 허락안이하실리가 업지오 나가원하는일은
무론모스 할고 안이 드러쥬시는일이 업는터 하필이일에만 안이 드러쥬실리
가잇슬가요 그러케되면 나는 도로혀 일이 폐이고 믿음도 편안하겟소 큰 짐
이나버셔노은것갓히서」

서병삼은 이말을 마뒤에 겁이덜셔난다

데이십일 회

서병삼은 난처하는괴식이 낮타나며 고기를기우리고 침음하더니

「글세는 중결과가 아모렷단지 우리가셔로 허여지자 안도록 되얏스면 다
형호련만 만일장인께서 올라오셔자 억지로그터를 식을고느려가실디경이

면 나는더쫓는키 울치여다보기지 쓸터잇나 몇철아니잇스면 나々를어린
아희의 얼굴도 보지못하게되면 엇지호오 나는제일그것이 걱정이야」
호며 얼굴에는 심히근심하는 빛을나타닌다 그러나근심하는모양이 실상
근심이라 외양으로만 억지로지어서는 근심이니 리경조도 티강 그괴식
은 짐작한다

「그러면 엇지호면 좃켓소 네々서방님」

서병삼은 유순한말로

「그것은 엇더케하던지히서 아모쫓도록 장인께서 올라오시지아니하도록히
야지 어린아희가 나은후에는 쏘다시 다른게교가 잇슬는지도 모로겟지만
은 지금당히서는 장인이올나오섯다는 나는또뻘걱정이 하느더싱길터이니
싸하는말이야 그말은다른말이아니라 그디가 예스몸과 드르고 티중으로
잇슬뿐아니라 만삭이되어가는데 만일야단이나셔 식골로다려가나니 걱정
을듯는이호면 인부의몸에 티단히로운일이잇는것은 의학상에 명하여논일
이닌사 그결과가티단 조치못홀터이니 인부가 몸이성치못하면 어린아희
까지 그혀를입는법이야 그러하닛간 아모쫓도록 여괴셔식골로 느려가지도
아니하고 장인께서 서울로올나오시지 안이하도록 일을쌌어야만 할단
말이야 그러닛간 그거슨무엇시라던지 쌌어터여서 속이려면 되겟지 하괴

방학동안에 강습회가 있다든지 그러치 아니하면 학교에서 식골로 슈학려
힘을 간다든지 무엇이라던지 거짓말로 꾸며더라면 만으니 식골로 곳 편지
를 보내시오

「그러치만 무엇이라고 답장을 할단 말슴이오 곳 답장은 허야만 할터인디요」
서병삼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글세 그것어 무엇이 어렵단 말이오 지금은 답장에 말하기를 하디 방학에는
곳 내려가겠노라 하고 그림시히서 별안간에 못나려 간다 하면 일이 되지 아니
하겠소」

서병삼은 너럼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그녀와 한가지로 동거하지 아니하
리라 하였으나 엇지 하면 감정아니나고 묘한 계책을 써서 비록 거짓으로 미친 인
연일지라도 쓴바 바릴고 하여 림시 응변으로 인순하여 가느라 리경조는 서
병삼의 말을 드림이 티중에 근심을 호던지 놀나운 일을 당하던지 하면 산모와 산아
가 서로 다히롭다 하는 말에 그럴듯이 여기여 너럼에 생각하기를 부친의 상경함을
막으려 하였더라

「그리면 아버지께서는 아모 조록 안이 올나 오시도록 하지요 그러고 또 다른
의론도 할말이 만이 있는디.....」

한며 리경조는 스리 죽은 목 소리로 무슴 말을 다시 할라 한다 서병삼은 처음 의식

보다는 천연히 달나 지고 극히 화평함음성으로 허우스며

「글세 여보 또 시름업는 사람 갖치 풀이한 아도 업시 무슴 생각을 하고 잇소 무
슴근심이 잇드리도 무음을 좀 녹히여가지고 괴운을 씩사 하게가지오 밤낮스
로 근심과 여러가지 생각만 하고 잇스면 첫지 몸에 허롭고 이러케 왔슬씨라도
좀우셔가며 화평한 얼굴을 보여 주구려 밤낮스로 지그를 하고 쓰리고만 지
너지 말고 응 안그렸소」

리경조는 고기를 번스 쳐들어

「흐사 나도 그러 할쑈를 모르는 것이 안이 예요 나도 그러 할쑈를 알지 만은 본
리성품이 그 모양이니 시간 엇지 하요」

「아니 그것은 성품이라 할것 아니라 이것은 지의가 지의고 심과 근심을
구히셔 사근심이야 그리지 말고 무음을 좀 풀쳐먹고 잇소 스름이란 것은 그
날스스 만스미잇고 유쾌하게 지는 것이 제일업니다 절머잇슬씨는 두 번 오
지 못하는 것이니 그 동안 무음으로 잘노라 불거서지 공연히 쓸터업는 세상 절
초에 억미여셔 저호고 심은 무음을 억지로 서리여 담고 고성으로 세상을 지
니는 것 처치 어리석은 일은 업서 나는 제 무음으로 런성라고 난디로 지는 것
시 첫지 인 줄로 아니스스름이 억지로만 드려노는 것은 그 불완전하고
되지 못호도 덕이니 틀리나 하는 것으로 사람을 속박하려 하는 것은 찰을 닦는 지

「우리는 그런일은 아조되니까 가령 말을 디경이면 사람의련이라 하는 것은
 억지정육에서 나오든 말인디 그정육이라 하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라 이세상
 에 사라는 모든 동물들은 다 일반으로 잇는 거시오 또 련이의 나종목적인즉
 사람과 동물들을 구별할것업시 다만 이세상에 한가지여날 이세상에 서말할기
 는 사람의련이는 신성하니 무엇하니 할면서 공연이 말을 지여가지고 하는 거
 슌 참우습드다 그러하기에 남녀간 관계라 하는 것도 한갓정육에서 지너지
 못하는 것이야.....」

「한참설명을 하더니 졸연이 잠잠 생각이 나는 것 같치

「하하 공연히 쓰디업는 짠 소리만 하였고 지금기 다라 케호소리는 엇더하던
 지간에 사람이란 것은 이세상에 서 재미있게 지너지 아니 할면 오히려 들린
 일이야 하느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내이실제 결단코 걱정근심으로 일성을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모조록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나고 내신일이니 인간
 부인도 아모조록 덜렁~하게 마음을 가지고 근심으로 지내는 버릇을 좀바
 리오」

그러는 리경지는 조과의월리로 먹어오던 음식과는 전연반대되는 극히 추루호
 언스를 다른 사람도 아니오 나의친근하고 바라고 밋는 남편의게 듯는 생각을 할 건
 디 하도기가 막히여 무엇시라 디 답할 방침을 모르고 다만 고기를 속이고 무수히

안져잇는디 밧그로서 사람의 신발소리가 나며 마당에 스오십된 늙은부인 두사람
 과 한이십제된녀조한사람이 써스던치마를 제각금버스면서 드러오더니 건넌방
 에서 남녀 두사람이 상디하야 무슴리야기를 할다가 문득긋치는 모양이라 그 절
 문녀조는 그모양을보고 홀연눈썹리가 이상스러워지며 늙은부인 한사람은 빙그
 림이웃고 삼인이모다 마루로 올라와 안방으로 드러가니 한부인은 서병삼의 장
 모요 또 한부인은 그 주인로 파요 절은부인은 서병삼의 부인이니 오날도 장안구
 경초로 삼인이나 섰다가 이제집으로 드러오리라

데이십이회

지금 밧그로서 드러온 절문부인은 그 장친절히 안져서 리야기하는 서병삼과
 교리를먹음고 다소곳하고잇는 리경지의모양을 보았을썩에 영민호되슈는 홀연
 히일종 감응을 전하야 무력~치미는듯호는 질투의 화렘이 불니듯일어는 다 리
 경지도 그 절문부인의 괴식을 숨히미 비록 서서호리하는 아지못할지라도 조연
 히그사람이 내몸에유익지 못할사람긋치 실은 생각이 흥중에왕리함을 서닷겟
 더라

절문부인은 안스방으로 건너가서 제스름스이에 무슴의론이잇서던지는 모로
 거니와 그부인은 옷가라 입을스이도업시 건너스방으로 건너가서 나적어하야
 「여보 서방님 나 드러가도 상관업겟소 손님이 오셨나 본데.....」